

한-사우디, 자원·산업 협력 동반자 관계 강화

- 산업부 장관, 전략경제협력 특사 방문(3~4월) 후속 중동(사우디, 카타르, UAE) 순방
- 한-사우디 원유·가스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 자동차·조선 프로젝트 등 제조업 인프라 확충, 광물·첨단산업 협력 확대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지난 4월 대통령 전략경제협력 특사의 중동 방문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우선 6월 13일(토)부터 14일(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였다. 우리나라의 원유 도입 1위인 사우디아라비아는 4월 특사단 방문 당시 원유·나프타를 한국에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번 김 장관의 방문은 공급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중동전쟁 상황에 대응하여 양국 간 자원 안보 및 산업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먼저, 김 장관은 사우디의 석유·가스 등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는 압둘아지즈 빈 살만(Abdulaziz bin Salman)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지난 4월 특사단 방문 시 양측이 협의한 원유·나프타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양측은 약속된 물량이 연말까지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원유 등 자원의 단기적인 공급 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자원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한-사우디 원유·가스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동 MOU에는 석유·가스, 석유화학 등 에너지자원 분야 전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분야들이 제시되었는데, 특히 ▲원유 비축, ▲송유관 인프라 개발 뿐 아니라, ▲AI·디지털 전환 등을 활용한 에너지자원 기술 혁신, ▲환경·경제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석유화학 소재 개발·활용, ▲에너지자원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적정 인프라 개발, ▲기업 간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면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김 장관은 파하드 알사이프(Fahad Al-Saif) 투자부 장관 및 반다르 알코라예프(Bandar Al-Khorayef) 산업광물자원부 장관과 면담을 진행하고, 한국 주요 기업들이 사우디 현지에서 추진 중인 산업협력 프로젝트의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였다. 특히, 내년 중 본격적인 양산 가동을 앞두고 가시적인 성과 창출이 기대되는 현대자동차-PIF 간 현지 합작 완성차 공장 프로젝트*,

축구장 약 700개 크기에 달하는 중동 지역 최대 규모(496만²m²)의 HD한국 조선해양-아람코 간 합작 조선소인 IMI(International Maritime Industries)**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적기 준공을 위해 사우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 연간 약 5만대 생산(전기차·내연차 포함)

** 향후 초대형 원유 운반선 등 선박을 연간 약 40여 척 생산 예정

양측은 자동차·조선 등 전통 제조업 분야의 성공 모델을 바탕으로, 향후 광물 분야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로까지 미래 협력 분야를 전방위로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 하였다. 특히, 양측은 사우디 내 풍부한 황, 인광석, 보크사이트, 희토류 등 첨단산업용 광물과 한국이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고순도 제련·가공 기술력 및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높은 광물 수요를 주목하고, 채굴-제련·가공-첨단산업 개발로 이어지는 전주기 협력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은 양국의 연구기관 간 사우디 광상 탐사, 국가지질 정보 구축 등 협력 기반 마련을 모색해나가기로 하였다.

김 장관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원유·나프타 등 국가 핵심 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재확인받고, 중장기 자원 협력 기반을 다진 것이 이번 사우디 방문의 큰 성과"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장관은 "그간 사우디와 긴밀히 추진해 온 실질적인 산업 협력 성과를 확고히 다진 만큼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제조업, 첨단산업 분야 등 다방면에서 경제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일정을 마친 김 장관은 카타르(6.15)와 아랍에미리트(UAE, 6.16)로 이동하여 중동 지역 핵심 파트너들과 릴레이 순방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 장관은 남은 순방 기간 동안 핵심 자원 공급망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원전·플랜트 및 신산업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다변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통상협력국 중동아프리카통상과	책임자	과 장	이중엽 (044-203-5720)
		담당자	사무관	최우진 (044-203-5723)
담당 부서	자원산업정책관 자원안보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정기 (044-203-5240)
		담당자	사무관	김민섭 (044-203-5246)